

고전적 오순절 운동에서의 기독론과 성령론과의 관계*

이신열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I. 서론

‘성령세례’(baptism with the Holy Spirit)라는 새로운 교리를 통하여 20세기 기독교 역사에 한 장을 형성한 오순절 운동은 그 이후에 신학 전반에 걸쳐 성령론에 대한 신학적 관심을 대변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개신교 신학과 로마 카톨릭 신학 모두가 성령론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주로 오순절 운동이 창출한 새로운 교리인 ‘성령세례’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시작되었다.

이러한 성령론에 대한 관심은 ‘신오순절 운동’(Neo-Pentecostal Movement)의 등장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고전적 오순절 운동’(Classical Pentecostal Movement)은 1960년 초반까지 전통적 교회와는 격리된 채 그들 나름대로의 교회들을 형성하고 독자적인 신학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오순절 운동’이라는 용어에는 오순절 신학의 교리와 그 실체가 기존의 전통적 교회속으로 확장되면서 전통적 교회라는 테두리 속에서 존재하는 일종의 부흥운동 형태를 띠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강조된다. ‘고전적 오순절운동’이 성령세례와 이의 초기적 증거로서의 방언을 중요시하고

1) 본 논문은 고려신학회 제3회 학술 논문발표회(2004. 11. 27)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임.

이를 교리화하였다면 1960년 이후로 가속화되어진 ‘신오순절 운동’이 로마 카톨릭을 포함한 개신교 전통적 교회 속으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 성령세례와 방언에 대한 절대적 강조보다는 성령의 은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 결과 ‘신오순절 운동’은 ‘은사주의운동’(The Charismatic Movement)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운동과 은사주의 운동의 공통점은 성령과 그의 은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라고 생각된다. 성령론에 대한 오순절 신학의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은 많은 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이런 맥락에서 오순절 신학의 특징이 ‘성령의 신학’에 있다고 간주되어지기도 한다.²⁾

성령론에 대한 이러한 집중적인 관심이 상대적으로 오순절 신학에 내재해 있는 기독교론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에 대하여 복음주의 신학자 패커(J. I. Packer)는 은사주의 운동의 장단점을 논의하면서 그 첫 번째 장점이 ‘그리스도 중심성’(Christ Centerdness)에 있다고 평가하였다.³⁾

패커의 이러한 평가는 오순절 운동이 성령과 그의 은사에 대한 경험을 강조하는 성령론적 신학이라는 해석에 대하여 오순절 신학이 지닌 기독교론적 특징을 재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데이튼(Donald Dayton)은 오순절 운동의 기원을 신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를 4가지 패턴(four-fold pattern)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4가지 패턴이란 ‘구원, 성령세례, 치유, 재림’의 4대 교리를 가리키는데 이는 1927년에 ‘국제사중복음교회’(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⁴⁾를 창립한 에이미 셴플 맥퍼슨(Aimee Semple McPherson)⁵⁾의 글에 잘 드러난다.

2) Frederick Dale Bruner, *A Theology of the Holy Spirit: The Pentecostal Experience and the New Testament Witness* (London: Hodder & Stoughton, 1970).

3) J. I. Packer, *Keeping in Step with the Spirit* (Grand Rapids: Revell, 1997), 184-5.

4)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이해를 위하여 다음을 참고할 것. Klaude Kendrick, *The Promise Fulfilled: A History of the Modern Pentecostal Movement* (Springfield: Gospel Publishing House, 1961), 152-163.

5) 그녀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Edith L. Blumhofer, *Aimee Semple McPherson. Everybody's Sister* (Grand Rapids: Eerdmans, 1993).

요한복음 3:16에 의하면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사도행전 2:4에 의하면 그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야고보서 5:14-15에 의하면 그는 우리의 몸을 치유하신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16-17에 의하면 예수는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⁶⁾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위의 4대 교리는 그 행위자가 모두 예수라는 사실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오순절 운동이 성령이 행하시는 고유한 사역을 강조하는 운동이라는 이해에 대하여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예수는 성령세례의 주체이며 예수가 없이는 성령세례가 베풀어 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문의 제기는 예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성령의 역할을 조명하려는 기독교론에 대한 성령론적 고찰과 또 성령세례를 기독교론적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성을 정당화한다. 본 논문에서는 범위를 ‘고전적 오순절 운동’으로 제한시켜 기독교론과 성령론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고전적 오순절 운동의 교리적 발전

오순절 운동은 일반적으로 파함(Charles F. Parham)⁷⁾과 시모어(William J. Seymour)⁸⁾라는 두 인물에 의하여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함은 사도행전 2:4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성령세례의 초기적 증거(initial evidence)가 방언을 말함에 있다고 보았고 이를 자신을 포함한 학생들이 실제로 체험하게 되었음을 주장하였다.⁹⁾ 당시에 감리교에서

6) Donald W. Dayton, *Theological Roots of Pentecostalism* (Peabody, MA: Hendrickson, 1994), 21에서 재인용.

7) 파함의 생애에 관한 자세한 연구를 위해서는 다음의 책들을 참고할 것. Sarah E. Parham, *The Life of Charles F. Parham: The Founder of the Apostolic Faith Movement* (New York/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85); James R. Goff, Jr., *Fields White Unto Harvest: Charles Fox Parham and the Missionary Origins of Pentecostalism* (Fayetteville: The Univ. of Arkansas Press, 1988).

8) 그의 전기로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D. Nelson, *For Such a Time as This: The Story of Bishop William J. Seymour and the Azusa Street, Revival* (Birmingham Univ. Diss., 1981).

9) James R. Goff, Jr., "Initial Tongues in the Theology of Charles Fox Parham," in *Initial Evidence: Historical and Biblical Perspectives on the Pentecostal Doctrine of Spirit Baptism*, ed. Gary B. McGee

주장되어진 ‘은혜의 두 가지 사역들’(two works of grace)의 개념을 받아들였던 파함에게 이는 또 하나의 사역으로 이해되어졌으며 이러한 새로운 이해는 그의 제자인 시모어에 의하여 로스앤젤레스의 이주사 대부흥운동(Azusa Street Revival)을 통하여 폭발적으로 증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성령세례에 대한 오순절적 이해는 감리교의 ‘2단계 이론’(two-stage theory)과 결합되어 이른바 구원에 대한 ‘3단계 이론’(three-stage theory)으로 불리워지게 되었다.¹⁰⁾ ‘2단계 이론’이란 구원이 칭의와 성화라는 두 가지 은혜로 구성된다고 보는 감리교적 견해로서 여기에서 성화는 구체적으로 ‘완전 성화’(entire sanctification)를 뜻한다. ‘3단계 이론’이란 이러한 감리교적 ‘2단계 이론’ 위에 성령세례라는 개념이 추가되었다고 간주하는 시모어의 견해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¹¹⁾

그러나 이 ‘3단계 이론’은 더함(William N. Durham)의 등장에 의하여 또 다른 ‘2단계 이론’으로 수정되기에 이른다. 이는 오순절 운동 내에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로 더함에 의하여 감리교적 ‘완전 성화’의 개념이 미국 오순절 교단의 주류를 형성하였던 하나님의 성화(Assemblies of God)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구원을 이제 ‘칭의’와 ‘성령세례’만으로 이루어진 ‘2단계 이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고전적 오순절 운동내의 주류적 견해로 자리잡게 되었다. 물론 이는 앞서 언급되어진 구원에 대한 ‘3단계 이론’ 접근 자체가 고전적 오순절 운동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남부를 중심으로 한 ‘오순절 성화교회’(The Pentecostal Holiness Church), ‘하나님의 교회’(The Church of God), ‘그리스도안에서의 하나님의 교회’(The Church of God in Christ) 등은 여전히 구원에 대한 ‘3단계 이론’을 따르는 감리교적 성격을 지닌 오순절 교회들이다.¹²⁾

감리교적 완전 성화의 개념이 오순절 신학에서 그 위치가 약화되었던 이유는 더함이 내세운 ‘갈보리의 완성된 사역’(the finished work of Calvary)의 개념과 깊은 관련을

(Peabody, MA: Hendrickson, 1991), 57-71.

10) Walter J. Hollenweger, *The Pentecostals* (Peabody, MA: Hendrickson, 1988), 23-24.

11) 1906년에 시작된 이주사 대부흥운동은 ‘사도적 신앙운동’(The Apostolic Faith Movement)라고 불리워졌다. 이 운동이 그 당시에 발행하던 잡지인 ‘사도적 신앙’(The Apostolic Faith)지에 오순절 운동의 구원이해에 관한 ‘신앙의 선언’이 실려 있다. Walter Hollenweger, 513을 참고할 것.

12) Vinson Synan, *The Holiness-Pentecostal Tradition: Charismatic Movements in the Twentieth Century* (Grand Rapids: Eerdmans, 1997), 118-128.

맺고 있다. 침례교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던 더함은 이 교리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그를 믿는 사람들이 성취하여야 할 성화가 칭의 혹은 회심의 단계에서 이미 완전하게 성취되어졌다고 간주하였다.¹³⁾ 성화는 더 이상 은혜의 두 번째 사역(the second work of grace)이 아니라는 점과 성화가 지닌 점진적 성격(progressive character)이 서서히 강조되기 시작하여 감리교적 완전 성화 교리에 함축되어진 즉각적 성격이 의미를 잃게 되고 말았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하였음을 뜻하므로 완전 성화를 통하여 주어지게 되는 죄의 도말(eradication of sin)이라는 개념의 중요성도 아울러 약화되었다.¹⁴⁾ 칭의, 성화, 그리고 성령세례라는 구원의 3단계 이론을 벗어나서 칭의(회심)와 성령세례라는 2단계 이론이 오순절 운동에 자리잡게 되었음을 뜻한다.

침례교적 배경을 지닌 다수의 독립교회들과 기존의 오순절 교회들의 일부가 더함이 주장하였던 구원의 2단계 이론에 동의하게 되었고 이들은 점차로 세력을 확장하여 1914년 4월에 아르칸사스(Arkansas)주의 핫 스프링스(Hot Springs)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회’(The Assembly of God)라는 교단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교단의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지도자는 고스(Howard Goss)이었는데 그는 1903년에 파함에 의하여 성령세례의 교리를 받아들였고 그 후 더함의 가르침을 추종하였다.¹⁵⁾ 이 교단은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교회’의 백인들과 침례교 출신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졌으며 미국 오순절 운동에서 가장 큰 세력을 지닌 교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화가 형성된 후에 다시 한 번 오순절 운동은 중요한 교리적 논쟁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는 성령세례의 초기증거로서의 방언의 ‘유일성’에 관한 논쟁이었다. The Christian Missionary & Alliance (CMA) 출신의 보스워스(Fred F. Bosworth)는 성령세례의 초기 증거가 반드시 방언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교리적 독단성에 내포되어진 위험을

13) Frank Bartleman, *Azusa Street: The Roots of the Modern-day Pentecost* (South Plainfield, NJ: Bridge Publishing, 1980), 150-159.

14) Robert M. Anderson, *Vision of the Disinherited: The Making of American Pentecostalism*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79), 166.

15) Edith L. Blumhofer, *Restoring the Faith: The Assemblies of God, Pentecostalism, and American Culture* (Urbana/Chicago: Univ. of Illinois Press, 1993), 116-117.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도전장을 내밀었다.¹⁶⁾ 1914년까지만 해도 보스워스는 수많은 사람들을 오순절 운동으로 이끌었던 영향력 있는 전도자로 성령세례교리에 동의하고 이를 가르치는 목회자이었다. 하나님의 성회가 형성된 후에 그는 교회사에 나타난 훌륭한 신앙적 위인들의 삶에 대하여 연구하는 가운데 오순절 교리가 올바른가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을 지니게 되었다.¹⁷⁾ 그는 방언이 성령세례의 유일한 증거가 아니라 많은 증거들 가운데 단지 ‘하나의 증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주장에 의하여 오순절 운동은 논쟁에 휩싸이게 되었고 1918년에 하나님의 성회는 보스워스의 견해를 단호히 거부하고 원래적 의미에서의 성령세례의 초기 증거로서의 방언의 유일성을 옹호하였다. 이는 고전적 오순절 운동에서 특이하게 방언을 두 가지 종류의 방언으로 구분하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다. 전통적 방언이해와는 달리 오순절 운동은 성령세례의 유일한 증거로서 주어지는 ‘증거적 방언’(evidential tongues)과 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은사로서의 방언’(the gift of tongues)이 따로 존재한다고 간주하였다.¹⁸⁾ 이로 인해 보스워스는 자신의 출신교단인 CMA로 귀환하였고 그는 자신의 견해를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치유사역에 계속 집중하였다.¹⁹⁾

III. 초기의 기독교적 논쟁

위에서 살펴본 오순절 운동의 교리적 발전에 관한 고찰은 사실상 성령론에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성회라는 오순절 교단의 형성 전후에 벌어진 중요한 논쟁이

16) William W. Menzies, *Anointed to Serve: The Story of the Assemblies of God* (Springfield, MO: Gospel Publishing House, 1971), 124-30.

17) Carl Brumback, *Suddenly . . . from Heaven* (Springfield, MO: Gospel Publishing House, 1961), 217-8.

18) Myer Pearlman, *Knowing the Doctrines of the Bible* (Springfield, MO: Gospel Publishing House, 1937), 310.

19) F. F. Bosworth, *Christ the Healer* (Grand Rapids: Revell, 1973). 이 책은 1924년에 처음 출판된 후에 8판까지 간행되었고 지금도 계속 출판되고 있는데 이는 치유사역에 관한 그의 글이 지닌 놀라운 인기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의 단일성(Oneness)에 관한 논쟁이었다. 이러한 논쟁을 불러 일으킨 자들을 ‘단일성 오순절주의자들’(Oneness Pentecostals)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논쟁은 1913년 4월 15일 로스앤젤레스 근교에서 열린 오순절 목회자들의 집회에서 비롯되었다. 우드워드-에터(Maria Woodworth-Etter)가 주도한 이 집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신적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이 일어났다. 우드워드-에터는 이 기적들을 예수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으로 선언하였는데 이는 오순절 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의례적인 차원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던 군중들 가운데 스케이프(John Schaepppe)는 유달리 ‘예수의 이름’이라는 용어에 주목하면서 그날 일어난 기적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의 이러한 이해는 에와르트(Frank Ewart)에 의하여 증거 되었다. 에와르트는 호주태생의 침례교 출신으로서 더함의 추종자이었는데 이 집회에서 세례식을 주도하였던 맥알리스터(R. E. McAlister)가 세례에 관해 설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이라는 용어들은 초대교회의 세례에 결코 사용된 적이 없다.”²⁰⁾ 이 주장에 설득되어져서 맥알리스터를 동조하게된 에와르트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상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삼위일체론적 용어를 대신해야 마땅하다고 믿게 되었으며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삼위를 모두 대신하는 용어라고 주장하였다.²¹⁾ 이는 전통적 삼위일체론에 대한 직접적인 부정으로 삼위의 각 위(person)는 사실상 예수의 다른 모습에 불과하다는 견해에서 비롯되었다. 전통적 기독교는 초기 기독교가 지녔던 올바른 신관을 버리고 잘못된 신관, 즉 다신론적인 삼위일체론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상실하게 되었는데 종말인 지금에 이 상실된 진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²²⁾ 올바른 신관의 회복은 예수의 이름에 의한 재세례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에와르트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세례가 예수의 이름에 의하여 베풀어졌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마 28:19의 삼위의 이름이 모두 언급되는 세례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에’ 의한

20) Frank Ewart, *The Phenomenon of Pentecost*, rev. ed. (Hazelwood, MO: World Aflame Press, 1975), 106.

21) Blumhofer, 128.

22) Anderson, 180.

세례를 외치고 모든 사람들이 이에 근거하여 재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행 2:38에 근거하여 회개, 예수의 이름에 의한 세례, 그리고 성령세례의 세 가지 요소들이 모두 충족되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회심이 일어난다고 믿었다.²³⁾ 1916년에 세인트 루이스 (St. Louis)에서 열린 하나님의 성회 총회는 정통적 삼위일체 교리에서 이탈한 에와르트의 교리를 정식으로 정죄하였다.²⁴⁾

단일성 오순절주의자들의 예수의 이름에 대한 이러한 지나친 강조와 이로 인한 삼위일체에 대한 부정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앤더슨(Robert M. Anderson)은 그 원인을 먼저 파함의 초기 가르침에서 찾고 있다.²⁵⁾ 물세례에 관한 설교에서 파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부인하였다.²⁶⁾ 그러나 앤더슨은 더 중요한 원인이 거의 모든 오순절주의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성경에 대한 근본주의적 해석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사도행전에 증거된 바와 같이 초대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들도 이를 그대로 답습하게 되었다고 보는 견해를 앤더슨은 지지한다.²⁷⁾ 블룸호퍼(Edith L. Blumhofer)는 이에 대하여 당시의 기독교적 감상주의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즉 그리스도를 감상주의적으로 추구하게 됨으로서 신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저버리게 되는 경향을 지니게 되었음을 뜻한다.²⁸⁾ 아마도 이에 대한 더욱 합리적인 해답은 근본주의적 성경해석이 지니고 있는 맹점이 잘 지적된 다음의 인용문에서 발견된다.

성경에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아내지 못하거나 자신의 마음에 새로운 계시를 자주 받지 못하는 설교자나, 이러한 새로운 계시를 설교하고 변호하도록, 그리고 이를 위하여 자신의

23) Blumhofer, 129.

24) 1975년경에 단일성 오순절주의는 미국에서 20개가 넘는 지회와 150만명에 이르는 추종자들을 지니고 있다. 이 운동의 기원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David Reed, "Aspects of Origins of Oneness Pentecostals," in *Aspects of Pentecostal-Charismatic Origins*, ed. Vinson Synan (Plainfield, NJ: Logos, 1975), 143-168.

25) Anderson, 176.

26) Charles F. Parham, "Voice Crying in the Wilderness," in *The Sermons of Charles F. Parham* (New York/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85), 22-4.

27) Anderson, 176.

28) Blumhofer, 130-1.

목숨을 내어놓도록 준비되어 있지 못한 설교자는 느리고, 어리석고, 영적이지 못한 자로 ... 설교자를 ‘타협자’로 부르는 것은 그의 사역을 망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드시 많은 새로운 계시들이 혼란을 초래하기 시작하였다.²⁹⁾

오순절주의자들의 그리스도 중심성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능력에 대한 신뢰로 나타났다. 이는 감리교의 죄의 도말에 관한 교리와 관련된 것이었다. 파함은 자신의 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덮어준다고 증거하였다.³⁰⁾ 이주사 대부흥운동에 참석하여 성령세례를 받고 유럽에 오순절 운동을 전파하였던 영국 웨일즈 태생의 노르웨이 부흥사이었던 바랏(Thomas Barratt)도 사도행전의 오순절 부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며 예수의 이름이 성령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증거하였다.³¹⁾

따라서 고전적 오순절 운동의 형성시기에 그리스도 중심성은 그 교리적 측면보다는 그의 대속사역에 근거한—특히 그의 보혈에 근거한—감성적 측면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감성적 측면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단일 오순절주의자들의 경우에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벗어난 채 새로운 가르침을 추구하는 이단화 경향을 지니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화가 이러한 이슈들을 ‘새로운 이슈들’(new issues)들로 지적하고 신론의 삼위일체론적 성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지켜나갔다는 점에서 적어도 초기 고전적 오순절 운동은 기독교론에 있어서 교리적 정통성을 견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성화가 그 초기적 단계를 지나 안정기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1937년에 발간되어진 펄만의 『기독교 교리의 이해』는 기독교론을 ‘그리스도의 본질’(the nature of Christ), ‘그리스도의 직무’(the offices of Christ),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the work of Christ)의 세 가지로 나누어서 논하고 있다.³²⁾ 그는 ‘그리스도가 누구인

29) Ethel E. Goss, “The Winds of God: The Story of the Early Pentecostal Days 1901-1914,” in *the Life of Howard A. Goss* (New York: Comet Press), 155; Brumback, 191에서 재인용.

30) Parham, 14.

31) Thomas B. Barratt, *The Work of T. B. Barratt*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1985), 97.

32) Pearlman, 139-181.

가?’ 라는 질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성경에서 비롯된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의도가 신학적 토론이나 성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회의 일원들에게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을 제공하려는 근본주의적 태도를 견지하는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필만은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신성과 인성으로 나누어서 논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그에게 부여되어진 다양한 명칭과 타이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³³⁾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본질을 정의하고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난 다른 견해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논박이 결여된 오순절 운동의 근본주의적 경향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된다. 따라서 앞서 언급되어진 단일성 오순절주의자들이 주장하였던 ‘오직 예수 이름에 의하여’(Jesus name only)라는 일신론적(unitarian) 주장의 파문과 그 파급효과에 대하여 아무런 기독교적 설명이나 논박도 제공해 주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³⁴⁾

IV. 기독교론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

고전적 오순절 운동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어떻게 성령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었는가?’하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제공하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그의 지상사역과 승천 후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한 질문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필만은 그리스도와 성령이 처음부터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되어 나타났다고 설명한다.³⁵⁾ 첫째,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주도하여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성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였다. 둘째,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 그리스도 위에 임하심으로 그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셋째, 그리스도의 승천

33) Ibid., 141이하.

34) 최근에 와서야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논박이 주어지게 되었다. 한때 단일성 오순절주의자였던 Gregory A. Boyd는 이들의 잘못된 주장을 성경적으로 논박하고 있다. 그의 *Oneness Pentecostals and Trinit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2)를 참고하라.

35) Pearlman, 302.

후에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되어질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기독교론에 대한 이러한 성령론적 이해는 교리사적으로 살펴볼 때 흔하지 않은 현상이었다. 헨드리쿠스 벌코프(Hendrikus Berkhof)는 그 이유로 양자론(adoptionism)을 언급한다.³⁶⁾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순절 신학이 일반적으로 전통적 기독교론을 답습하고 있으므로 예수를 단지 인간으로 파악하고 성령에 의한 인간 예수의 신격화를 옹호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필만은 성령이 임하자 그리스도가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던 사실 자체를 인간 예수가 신적 능력을 부여받아 신격화되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또한 이를 인간 예수가 신적 능력을 받아 신적 사역을 감당한 것으로 이해하지도 않는다. 신오순절 운동의 경우에 후자의 경우를 지지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사실(막 1:10)을 그리스도가 성령세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예수도 성령세례를 받았으므로 신자들은 더더욱 이러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성령세례의 당위성과 연결 짓게 되었다.³⁷⁾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예수를 단지 ‘도덕적 본보기’로 이해한 19세기의 자유주의적 사고에 근거한 것으로 예수가 처한 상황을 다른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필만은 예수의 인격과 사역에 미친 성령의 역할을 논함에 있어서 성령세례가 예수와 성령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강조하지 않는다. 즉 성령세례의 주체가 예수라는 사실보다는 성령세례가 단지 예수가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점이 언급되어졌을 따름이다.³⁸⁾ 필만은 그리스도 위에 임하셔서 그가 자신의 직분을 담당하도록 능력을 부여하였던 성령과 예수의 승천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위한 성령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정도의 차이라고 해석하였다.³⁹⁾ 그렇다면 이는 그리스도가 다른 환경과 직무에 처하게 됨에 따라 성령이 주어지는 정도가 다르다는 뜻인가? 즉 그리스도의 직무에 따라 성령이

36) Hendrikus Berkhof, *The Doctrine of the Holy Spirit, The Annie Kinkead Warfield Lectures, 1963-1964* (Richmond, VA: John Knox Press, 1964), 19-20.

37) H. I. Lederle, *Treasures Old and New: Interpretations of "Spirit-Baptism" in the Charismatic Renewal Movement* (Peabody: Hendrickson, 1988), 57이하.

38) Pearlman, 309.

39) Ibid., 302.

주어지는 정도가 달라져서 성령과 그리스도 사이에 다른 관계가 성립되어야 함을 뜻하는가? 제임스 던(James Dunn)은 이에 대하여 바울 서신에서 성령에 대한 언급 — 예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 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스스로가 아버지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라고 보았다.⁴⁰⁾ 이는 예수가 아버지와 맺는 관계에 의하여 성령이 정의되어질 수 있다는 삼위일체론적 정의에 근거한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이신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표현(고전 15:45)은 이제 성령이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승천하신 예수를 대신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실제로 믿는 자들이 이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가리킨다.⁴¹⁾ 따라서 필만이 주장하는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정도의 차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을 인식하고 체험하는 차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V. 성령세례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역할

성령세례의 교리는 고전적 오순절 운동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부루너(Frederick Dale Bruner)는 이 교리가 후속(subsequence), 초기증거(initial evidence) 그리고 조건(conditions)의 3가지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하였다.⁴²⁾ 이 세 가지 요소들을 하나씩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은 성령세례가 신자의 회심 혹은 중생함을 받은 뒤에 따로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임을 잘 드러낸다. 둘째, ‘초기증거’는 성령세례의 구체적이며 물리적 증거가 반드시 처음에 방언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셋째, ‘조건’은 성령세례를 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만족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음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성령세례의 기독교적 이해를 위하여 우리의 관심을 끄는

40) James D. G. Dunn, *Jesus and the Spirit: A Study of the Religious and Charismatic Experience of Jesus and the First Christians as Reflected in the New Testament* (London: SCM Press, 1975), 319-320.

41) Ibid., 323.

42) Bruner, 61-129. 필만은 세 번째 요소를 ‘조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방식’(manner)이라고 불렀다. Pearlman, 316-319.

요소는 첫 번째 ‘후속’이다. ‘후속’이라는 용어는 성령세례가 회심 혹은 중생의 논리적인 결과로 이들을 뒤따르는 구원의 순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이들이 발생한 후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심하게 되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은 이미 부여되었다. 이는 그리스도가 획득한 구원의 열매들이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 신자들에게 적용되었음을 뜻한다. 이렇게 성령에 의하여 구원의 열매가 적용된 후에 성령이 또 다른 의미에서 새롭게 주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후속’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부루너는 이 후속의 의미를 두 가지 나누어서 설명한다.⁴³⁾ 첫째, 성령의 영구적, 인격적, 그리고 충만한 내주를 뜻한다. 여기에서 회심이나 중생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성령이 완전한 내주를 뜻하지는 않으므로 후속적으로 성령세례에 의하여 성령이 영구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충만히 내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즉 성령이 먼저 중생이나 회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역이 불완전한 사역임을 뜻하는데 이는 성령세례라는 경험적인 측면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봉사를 위한 능력이 주어지게 됨을 뜻한다. 이는 능력을 받는 사람 자신의 구원과는 관계없이 단지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를 가리킨다.⁴⁴⁾ 그렇다면 여기에서 능력이란 어떤 능력인가? 봉사는 궁극적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봉사인데 이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봉사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봉사를 위한 능력의 부여는 사실상 그 기본적 성격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함에 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기독교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첫째, 그리스도가 획득한 구원의 열매들이 성령에 의하여 적용된 후에 어떠한 것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대속의 충분성(sufficiency)과 그 최종성(finality)을 부인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기독교론과 성령론의 관계에서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성령론이 기독교론에 종속적이라는 견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뜻한다. 즉 성령의 사역이 곧 그리스도의 사역의 적용이며 그 범위에 있어서 결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벗어나지 아니한다는 중요한 원칙의 거부를 뜻한다. 따라서 오순절 신학에 있어서 성령세례가 지닌 기독교론적 함의는

43) Bruner, 70-75.

44) Pearlman, 309.

성령론이 기독교론에 종속되지 않고 대등한 위치를 확보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획득하신 은혜가 성령에 의하여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어 주어지게 된다는 이해보다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비롯된 회심(칭의)과 성령이 베푸시는 세례를 이원화하려는 이분법적인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⁴⁵⁾ 이는 더함이 주장한 그리스도의 ‘완성된 갈보리의 사역’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성령세례와는 구별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역과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보여주는 예증이다. 둘째, 성령이 부여하는 능력이 개인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라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성령의 능력을 가리킨다. 이 능력은 흔히 ‘위로부터의 능력’(power from high)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⁴⁶⁾ 그러나 이 능력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witness for Christ)라고 본다면 이는 기독교론적으로 연관되어야 할 능력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세례의 결과로 주어지는 봉사를 위한 능력에 대한 기독교론적 고찰이 간과되었다는 사실은 오순절 신학내에 존재하는 성령론을 기독교론으로부터 독립시키려는 경향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예증이다.

VI. 결론

오순절 운동이 성령세례라는 새로운 교리를 보편화하면서 오순절 신학은 성령론적 신학으로 규명되어왔다. 본 논문은 고전적 오순절 운동에서 성령세례에 대한 이해가 기독교론적으로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먼저 고전적 오순절 운동의 초기과정에 벌어진 교리적 발전과 기독교론적 논쟁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성령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오순절 운동의 신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본 후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령세례에 역사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45) Ralph M. Riggs, *The Spirit Himself* (Springfield: Gospel Publishing House, 1949), 146.

46) S. Y. Lee, *Grace and Power in Pentecostal and Charismatic Theology* (Apeldoorn: TUA, 2002), 2.

통하여 고전적 오순절운동이 성령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적용한다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성령의 사역에 새로운 영역인 성령세례를 확인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을 이분화하려는 경향을 지니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회심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만 간주하고 성령세례를 그리스도로부터 분리하려는 시도로 드러났다. 또 성령세례에 의하여 주어지는 능력의 개념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기독교론적인 접근과 이해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오순절 신학내에 존재하는 성령론을 기독교론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